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이새의 뿌리 성경: 이사야 11장 10-16절
 (Tag:이새의뿌리,크리스마스,성탄절,성탄정신,그루터기,가치,구약성경,이사야)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3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애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5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사 11:10-16)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새의 뿌리란,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세계와 우주 전체를 볼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다. 온 세계와 우주는 그 존재 자체가 신비스럽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섬세하며, 질서 정연하며, 면도날 하나의 틈과 같은 오류라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류의 최악으로 인해서 엄청난 오류와 재난이 닥칠 것 같지만, 세계는 스스로 그 오류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마침내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는 위대한 자정 능력과 복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이해가 극명하게 갈린다. 인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 한사람에 불과하더라도 온 우주안에 유일하게 우수한 지적 능력을 간직한 존재이다. 또한 우주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세상의 만물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삼차원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은 온 우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사악하다. 문제는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구별이 가능하면 히틀러의 이론이 옳다.)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은 한결같이 선한 측면이 관찰된다.(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조폭 두목들은 보통 경찰들 보다 더 남성스러움과 카리스마와 포용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천사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보통 악한 사람과 전혀 다를바가 없는 욕심과 질투심과 교만함과 교활함을 두루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이것이 인간의 딜렘마다.(기독교는 이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타종교는 사람의 인격성에 집중하나, 기독교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 스스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또 그래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강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딜렘마를 해결하시는가? 먼저는 우리를 유토피아에서 추방하셨다. 유토피아에서 쫓겨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으나 결코 영생을 누리지는 못한다. 즉,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영생

하도록 하지 않으신 것이 첫 번째 조치이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셔서 결코 사악한 채 오래도록 살지 못하도록 하셨다. 즉, 세계의 풍요로움을 제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을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신 셈이다. (여기까지가 부정적 조치)

세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게 하셨다. 선택된 자들에게는 특별한 복들이 주어졌다. 풍요롭게 된다는지, 진보를 이룬다는지, 건강하게 된다는지, 지배적 권리를 갖게 된다는지, 진정한 행복감과 평안함과 보람을 맛보게 된다는지 등등 행복과 관련된 것들을 얻도록 하셨다.

그리고 죄가 많은 자들은 저주가 많도록 하셨다. 또 죄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죄다. 죄에 빠진 자마다 죄의 노예가 되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수명이 단축되고 세월을 허송하게 되며,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 지옥형벌을 당하게 된다.

즉, 마지막 세 번째 조치는 결국 사람들끼리 경쟁하도록 하시고, 선과 악이 대결을 통해서 선한 편이 승리하게끔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사망이 없고, 정죄함도 없으며, 멸망도 없게 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 비록 그가 순교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셨다! 선이 악을 이긴다.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결코 선을 이겨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죄와 저주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지만, 결단과 선택이 없는 자에게까지 영생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

분명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또, 정말 믿는 자에게만 복이 주어진다. 믿음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순종,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다.

기독교의 구원에는 현세적인 구원과 내세적인 구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며, 비로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어,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진정한 회개이다. 회개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라는 것을 깨우치실 때마다 뉘우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 복된 생활을 누리게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여전히 세상에는 죄가 만연해 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은 고통스럽다. 특히 기독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양심의 자유와 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심지어 죄인들도 이 자유를 역이용해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싶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맘껏 누리겠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양심이 가책도 받기 싫으니 죄를 죄라고 정죄하지도 말라고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솔직히 기독교가 왕성하게 전파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국가에서 이렇게 죄가 만연한 이유는 기독교적 가치로 인해서 인간 개개인에게 자유가 최대한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독재권력은 바로 이런 가치를 허용하지 않고, 아예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늘 본문말씀에서도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는 이사야 6:13절에서는 남겨진 그루터기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이런 표현은 아주 작지만 선한 DNA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뜻이다. 노아때도 노아 한사람으로 인한 한 가족만 남겨 두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다.

성탄도 한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알리신 것이다. 그루터기도 아닌, 뿌리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신다는 뜻이다. 기독교적 가치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한 사람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 꼭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한 기독교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다. 한 나라에 20%만 진실한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나라는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한민국에 꼭 걸맞는 말씀이기를 소망해 본다.

13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대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대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대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왔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 시대의 구원의 사명을 대한민국에게 맡기셨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이것은 틀림없다. 우리 모두는 신령한 이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이새의 뿌리

그루터기

좋은 씨앗

좋은 씨앗에 물을 주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막에서도 살아남는다.

1 <평화의 나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사11:1)

12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롬15:12)

10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11:10)

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찌라도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사6:13)

26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단4:26)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